

불교에서 '극단주의' 해법 찾은 독일

해외불교칼럼

독일 불교는 1903년 칼 자이렌슈타이너가 라이프치히에 백인불교단을 결성하면서 동지를 틀었다. 이어 독일인 스님이 등장하고 1924년에는 의사 파울 달케가 베를린 북부에 불교센터도 처음 세웠다.

그러나 60년대까지도 불교는 독일의 최고 지식층 사이에 머물렀다. (역자 주: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유럽 최초의 팔리어 경전 전문가로 <법구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칼 오이겐 노이만 및 헤르만 올덴버그 교수, 뮌헨 티베트 학자 이삭 아랍 슈미트, 소설 <사타르타>의 저자 헤르만 헤세, 비교종교학자 막스 필러, 오케스트라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등) 그러나 이제 불교는 독일사회 중심으로 과감한 행보를 시작했다.

독일불교연맹본부의 헬게 라텐자는 현재 독일인 불제자는 약 13만, 아시아계를 포함하면 약 20만이라 밝혔다. 지난 9월 독일연방 내무성 통계에 의하면 독일 전역에는 55개 불교등록단체와 600여 동아리가 있다.

함부르크의 불교센터에서도 의사, 건설기사, 광고업자 등 100여 명의 불제자들이 매일 저녁 참선을 한다.

가수 니나 하겐, 배우 랄프 바우어, 축구선수 메메트 쉘 등 대중스타들을 포함한 독일불제자들은 낯은 교화나 조신소 부지 등을 매입하여 리모텔링 불사를 한다.

불교에 대한 관심이 왜 이처럼 고조될까? 삼발라 불교포교원의 슈나이더 지도법사는 불교의 '관용성'이 그 이유라고 잘라 말한다. "역사상 기독교, 이슬람의 십자군 전쟁은 불교



독일의 청소년들이 한마을선원 독일지원에서 다도교육을 받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교과 간 유혈충돌들이 그치지 않았으나 불교전쟁이란 결코 없었다. 현재도 대부분 종교 내에 광신극렬집단들이 발호한다. 그러나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추구하는 불교에는 광신도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하이델베르크대학의 인젠 프를 신학교수는 "불교는 교화와 달리 참선과 체력관리, 불교적 심미의식을 통해 우리 심신을 치유한다"며 불교가 기독교적 배경으로는 전혀 풀 수 없는 모든 의문들에 명쾌한 답변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불제자가 된 퓌커 비프레흐트는 불교는 위기의 현대인에 주어진 무한한 선물이라 말한다. "지난 20년 남짓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맨 끝에 불교만이 전적으로 믿음직한 체계임을 깨달았다"는 게 그의 말이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함부르크 티베트 센터는 7년제 정규 불교과정을 운영하고 일부 지자체는 불교를 각급학교의 정규교과목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동양학자인 한스 그루버는 단언한다. "흔히들 행복을 조건이나 외부사물들과 결부시킨다. 그러나 불교는 행복이란 조건과 사물이 아니라 그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에 의해 충족된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불교는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번역=성유 스님 · 출처=롯데캐슬

탐스 위커는 영국출신으로 BBC와 채널4 다큐멘터리를 비롯해 2003년부터 독일의 도이체 텔레비전, 아르테 텔레비전 등에서 여러 다큐 저널리스트로 활약 중이다. <출처: 도이체 텔레 빌드>

달라이라마, 미 에머리대학 방문

미국 간디재단의 평화순례상 수상 위해 지난 일요일 미국 저명 사립 에머리대학에 초청된 달라이 라마는 "교통 통신의 발달로 지구촌이 좁아짐"에 따라 종교적인 상호이해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 대학 석좌교수인 그는 불교개론을 특강하는 자리에서 6세 때부터 수행했던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냈다.

"한참 놀고 싶은 나이에 공부하자니 스승님만 나타나면 해가 지고 밤이 되는 듯 답답했다."

그는 그에 앞서 부시 대통령이 참석한 미국하원에서 개최된 성대한 시상식에서 최고 명예메달을 수상, 이에 중국정부가 불리한 반응을 보인데 대해 자신이 바라는 바는 티베트의 독립이 아니라 완전자치임을 재천명했다.

<출처: AP 통신>

영 아미타 트러스트 생활불교회의 개최



영국 아미타 트러스트의 회원들

유럽불교연맹의 회원조직인 영국 라이체스터 나보로우의 아미타 트러스트는 "틀을 깨고 불교의 서구 진출 및 참여"라는 주제로 2008년 4월 26일부터 10일간 제5차 생활불교회의를

개최한다.

불교와 예술 등 주제별 소모임, 다종교 속의 불교 교육 등 사전 행사에 이어 이후 5월 5일까지 기조연설, 본 회의, 워크숍, 전시회로 이어지며, 불교 입상심리, 치유, 자원봉사, 교화, 상호 및 유관사업 등 실용적 측면을 강조한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불교가 정적이며 개인적인 자기수양이란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질적인 서구사회환경에 파고드는 접근방식 등이 논의된다.

영국 전역에 네트워크를 지닌 아미타 트러스트는 지난 15일부터 뉴키슬 지부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미안다 사태에 대한 침묵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진흙 속의 연꽃 lotus in the mud 홈페이지>

월드 불심도

만능록스타 리키 마틴 2

이웃을 위한 아낌 없는 자비행

지난 2004년이 저무는 12월 26일 자정 쯤 서부 인도네시아 인근에서 발생한 해저지진으로 인도양 주변 12개국 순식간에 생지옥이 됐다. 유엔 공식집계에 의하면, 흔히 쓰나미로 알려진 안다만 수마트라 대륙사의 사망, 실종자만도 22만6000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편, 그 대재앙은 전 세계적인 구호 및 자원봉사단체들이 지구촌 이웃의 고통을 나누고자 나서면서 인종, 종교, 문화를 초월한 참된 인류애를 확인하는 드문 계기도 됐다. 영국은 이 경우, 이듬해 1월 17일 200여개 상업방송사들이 정규방송을 전면중단하고 12시간 동안 특별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해 거대구호기금을 조성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실태파악과 자선홍보를 위해 현장으로 달려간 대스타들 중 맨 처음 현지를 찾은 이가 리키 마틴이다. 그는 이미 두 해 전인 서른한 살 때부터 무려 5500만 장의 앨범이 팔린 그래미상의 메가스타라 스포츠 라이트를 출연히 뒤로 한 채 아동매매방지과 고아원, 아동병원 설립 등에 앞장서 왔다.

국제구호기구 유니세프의 천선대사로 활동하는 그는 쓰나미 최대 피해지역인 푸켓에 도착하자마자 특수 방제복을 입고 부패한 시신들이 뒤엉켜 있는 허름한 목조건물까지 들어갔다. 그 직후 미국의 유명 토크쇼인 오프라 윈프리에 출연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 스스로 자주 묻곤 했죠. 나는 누구인가? 또 왜 이 세상에 있으며, 내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마침내 다시 어린이가 되어 모든 걸 새로 시작하기로 한 거죠."

방정객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는 마치 화두란 반드시 복잡 난해한 것이 아니며, 득도 또한 아득히 먼 길이 아님을 새삼 일깨워줬을 뿐만 아니라, 묵묵히 무한대의 자비공덕마저 더함으로써 대자대

비에 대한 무언의 사자후를 토했다. 이내 피해 현장을 다시 찾은 그는 자신이 설립한 리키 마틴 구호재단에서 준비한 조립식주택 200채와 임시막사들을 주민들에게 기증하고, 연말에는 쓰나미 참상을 기리는 추모음악회도 개최했다.

그는 또한 관광휴양지가 완전히 파괴된 현지인들의 생업 터전을 대대적으로 복구하고 홍보하기 위해 파퓰러 비치에서 특별자선콘서트를 가졌다. 쓰나미참사는 분명히 전대미문의 비극이었으나, 그 직후에 피어난 상식적이며 보편적인 인류애로 인해 그해 겨울은 꼭 춥지만은 않았다.

보이조지와 클리프 리처드는 기금모금을 위한 음반 '슬픔은 날로 새로워'를 발표하고 폴 매카트니, 샌드라 불록, 조지 크루니,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등은 각각 우리 돈으로 수억대의 구호기금을 내놓았다.

자신의 양자에게 목소 불경을 읽어주고 가르치는 안젤리나 졸리도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아낌없는 자선을 행했다.

2005년 1월 14일 유명연예자 <스카이쇼비즈>는 불제자인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역시 몇 해 전 자신의 영화 '해인'을 촬영했던 현지 피해주민들에게 '막대한 금액'을 희사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조선닷컴 등 국내 언론은 물론 북대 등 외신들이 '쓰나미 희생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 말한 한국의 어느 교회지도자에 대해 일제히 보도한 것도 바로 그 즈음이다. 참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다. 현재 리키 마틴은 쓰나미 희생자들이 남긴 고아들의 보육과 교육을 집중 지원한다. 그의 재단 홈페이지(lickymartinfoundation.org)에 이런 말이 나온다. '모든 어린이는 놀고 웃고 배우고 행복히 자랄 권리가 있다.'

성유 스님



Because I'm Here - 내가 여기 있으니까요

원문: 'Because I'm Here'

An old monk was sweeping the yard in a monastery under the scorching sun. Another monk passed by and asked him, "How old are you, venerable?"

The old monk silently replied, "I'm seventy-seven."

A bit surprised, he asked again, "You are so old! Why are you still working so hard here?"

"Well, because I'm here."

"But why are you working under the scorching sun?"

"Because the sun is there."

해설: '나 여기 있음에'

노스님 한 분이 피아벨 아래서 짙 마당을 쓸고 계셨다. 그 곁을 지나면 다른 스님이 물었다. '스님, 세수가 얼마나 되시지요?'

노스님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내 나이 일흔 일곱이랍니다.'

좀 놀란 그가 다시 물었다. '네? 연세가 그리 높으시지요? 그런데 어인 일로 여태 여기서 힘든 일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필이면 왜 저 따가운 햇볕 아래서 일을 하시는지요?'

'해가 저기 있으니까요.'

大韓護國佛教彌勒禪宗

종도모집안내

대한호국불교 미륵선종은 중국 송산 소림사에서 禪의 初祖이신 達摩大師의 法脈을 소림사 釋永信 方丈으로부터 전법 수계받은 제34대 제자 釋延和 총무원장께서 창종하신 종단으로 한국불교계에 새로운 선종을 일으켜 종풍을 청정케하고 禪花를 꽃피우고자 분연히 일어서 종단입니다.

이에 뜻을 함께하실 종도들을 모집합니다.

총무원장 德山 釋延和

△총본산 용화사

총본산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 2리 산 247번지 미륵산 용화사
 전 화 : 033)765-0122(스님), 761-7008
 02)766-6800 / 011-285-6800
 인터넷 : 용화세계 / www.yb108.com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때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때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풍풍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구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해동불교 무량종

창종 발표 및 법회

총무원장 학성 대종사

창종 법회 일시

- 일시 : 2007년 음력 10월 7일(양력 11월 16일) 오전 10시
- 장소 : 해동불교 무량종 총본산 전남 여수시 소리면 관기리 10-1번지 무량사
- 문의 : 061) 683-7147, 010-3114-4074

해동불교 무량종